주간통일정세 2013-43(2013.10.21~10.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43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완공된 미림승마클럽 시찰(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개월 만에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클럽)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미림승마구락부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승마봉사소, 실내 승마훈련장, 승마지식보급실 등의 여러 건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대상들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며 만족을 나타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음.
- 또한 노동당이 마련한 60여 필의 말을 둘러봤으며 청년들이 승마하는 것을 보고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 금수산태양궁에 외국인은 '자기 예법 따라' 참배(10/21,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를 위해 매년 두 달간 휴관하고 외국인 참배 방법도 법에 명시한 것을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금수산태양궁전법'이 궁전의 위상과 관리 · 운영 방법, 방문객의 참배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이 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 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는 데 이바지한다"고 법의 목적을 규정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軍 중대장대회 연설…"黨중심 단결하자"(종합)(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초급 간부들이 참석한 인민군 중대장 ·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2~23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중대장 ·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당 중앙의 두리(주위)에 굳게 단결해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며 모든 중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함.
- "중대 안에 강철 같은 규율을 확립해 정규화적 면모를 갖추고 중대 지휘관리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군인들의 생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임.

○ 北 김정은, 군인예술축전 당선 중대 공연 관람(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무자 예술축전에 당선된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36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당선된 251군부대·905군부대·565군부대·1821군부대 관하 중대 군인들과 해군 167군부대 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0/20,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 시찰(10.20,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원춘(黨 중앙委 부부장) 동행
- 10/24, 김정은 黨 제1비서, 10.24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관람(10.25,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등 참가
- 10/27,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10.27,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김창섭, 변인선, 서홍찬, 김수길, 렴철성, 김영철, 조경철, 황병서와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장·정치지도원들 함께 관람
  - 제251군부대, 제905군부대, 제565군부대, 제1821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 공연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10.22~23 김정은(개회사 및 폐회 선언) 지도 下 평양에서 진행(10.25,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최룡해 낭독)에 따라 인민군대 강화에 공로를 세운 '김상일(중대장)' 등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1급 수여
  - 최룡해(보고),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김창섭, 최부일 등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10.24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0.25,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등 참가
-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옹진군의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장송협동농장 등) 현지 요해 및 황해남도 버섯공장 건설장 방문(10.25,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내각 확대회의 개최…"농업 · 경공업에 큰 힘 넣자"(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3분기 인민경제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고 4분기 및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대책을 토의했으며 특히 내각의 주요 과업에 대해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큰 힘을 넣어 올해 농사 결속을 와닥닥 해제끼고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노동신문, 브릭스 경제협력 동향 상세 보도 주목(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신흥경제국의 대표주자인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협력 동향을 전하면서 이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를 전망했다고 22일 보도함.
- 신문은 '브릭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기사에서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등 브릭스 역내 협력 강화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낡고 불공정한 국제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자체의 금융질서를 수립하고 그에 의거해 안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 주도의 국제 금융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함.

○ 北 노동신문 "올해 각지에 경제개발구 14개 지정"(10/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필요한 때에 유익한 화합'이라는 글에서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지난 16~17일 평양에서 개최한 경제특구 국제토론회를 자세히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 법대의 강정남 박사는 첫날 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이미 전에 나왔고 올해에는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밝힘.

○ 北 학자 "경제강국 건설 위해 평화적 환경이 필수"(10/27, 금수강산)

- 북한의 경제학 전문가 단체인 조선경제학회의 리행호(72) 회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북한의 대외홍보용 잡지 '금수강산' 10월호를 통해 밝힘.
- 리 회장은 잡지에 실린 대담에서 "평화적 건설로 나가야 하는 우리는 결코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그 자제력의 근저에는 선군의 막강한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다. 사회 · 문화

○ 北 야구 '명문'은 기관차체육단…10년째 우승 석권(10/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10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화국선수권대회의 일부 종목 경기들이 끝났다"라며 "야구경기에서 금메달은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은 대령강체육단과 와우도체육단 선수들이 (각각) 받았다"고 밝힘.
- 기관차체육단 야구팀은 올해 공화국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북한의 크고 작은 '국내 대회'에서 매번 우승했으며 북한 매체의 보도 기록에 따르면 1999년 4월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우승 이후 2004년 공화국선수권대회, 2010년과 2011년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에서 모두 우승했음.

○ 지난해 북한 결핵 사망률 소폭 낮아져(10/24,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년보다 낮아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WHO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9명으로, 2011년(10만명당 10명)보다 줄었으나 지난해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 명당 409명으로, 2011년 404명보다 다소 늘었음.

○ 北 김일성大, 국제프로그래밍 대회 잇달아 우승(10/24, 조선신보)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매월 열리는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대 학생들로 구성된 팀은 지난 14일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업 '디렉티'가 주최한 '코드쉐프'(Codechef)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 대회에서 1위에 올랐음.

○ 여北, 외자 유치 다양화 시도…'BOT' 방식에 관심(10/25, 연합뉴스)

-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8월15일 발행)의 'BOT 방식과 그 발전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BOT 방식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됐고 재정 적자와 채무 부담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이 기간시설을 개발하는 데 이 방식을 적극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학보를 인용해 25일 소개함.
- 더하여 "(BOT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옳게 이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北 미림승마클럽 준공…"승마 바람 일으키자"(10/25, 조선중앙TV)**

– 북한이 25일 주민의 승마 활동을 위한 시설이라고 선전해온 미림승마구락부(클럽)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 문경덕 노동당 비서 등의 고위간부와 군인건설자, 근로자, 청년학생,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노동신문, 소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대(10/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사를 21일 보도함.

– 신문은 '소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가 러시아에서 성대히 개최될 2014년 소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 "시간은 북한 편…美 선택은 협상뿐"(10/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라며 미국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함.

– 신보는 '조선에 차례진 유리한 시간'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최근 한반도 해상에서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동원한 군사훈련 등으로 도발을 계속하지만 북한 내부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없다고 강조함.

– 이어 "새로운 병진노선이 구현된 조선에서는 공은 이미 미국 측에 가 있으며 시간은 조선의 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침투되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강자 입장에서 '적대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넉넉함이 생겼고 시간표에 따라 경제건설을 할 체계와 질서가 잡혔다고 주장함.

○ **북한, 日 방위상 '北미사일기지 타격 발언' 비난(10/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타격을 언급한 데 대해 군사대국화를 노린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오노데라 방위상이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 ·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타격능력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며 "방위상의 망발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함.

WFP "北 함경북도 식량사정 가장 열악"(10/22, 미국의소리(VOA))

- 북한 지역 가운데 함경북도의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식량과 영양 안보'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5단계로 나누면서 나선시, 청진시, 회령시, 무산군 등 함경북도의 절반 이상을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단계로 분류했으며 함경남도에서도 단천시, 신포시, 홍원군 등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단계에 포함됐다고 전함.

英평가기관, 北 고려항공 '최하위 항공사' 평가(10/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항공사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북한 고려항공을 최하위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고려항공은 스카이트랙스가 전 세계 600여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하위인 별 1개의 항공사로 분류됐으며 항공기의 노후상태, 기내식, 승무원의 영어실력, 안락함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별 1개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함.

파나마, 北청천강호 선원 대다수 석방할 것(10/22, 뉴욕타임스(NYT))

- 지난 7월 미신고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의 대다수가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보도함.
- 파나마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는 3개월 이상 억류된 청천강호 선원 35명 가운데 33명을 석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파나마 해양경찰이 청천강호에 승선하자 자살을 시도했던 선장과 선장의 측근 1명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함.

로드먼 방북 동행 美교수 "김정은, 친화력 있는 인물"(10/22, 미국의소리(VOA))

-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지난달 초 방북 때 그와 동행한 미국 교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원만하고 친화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2일 보도함.
- 로드먼 일행에 속했던 조지프 터윌리거 컬럼비아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줬다"며 이같이 말하고, 방북 첫날 평양에서 로드먼이 추진하는 '스포츠 외교'를 북측과 논의했으며 다음날 김 제1위원장 전용 별장으로 이동해 이틀 동안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힘.

- **北 신문 "美 위협 노골화…대화도 전쟁도 준비됐다"(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유사시 전쟁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군사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과 정찰용 무인항공기 일본 배치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는데 대해 "설득력이 전혀 없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인도네시아 대통령, 北 김정은에 친서(종합)(10/22, 조선중앙통신)**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한을 방문 중인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친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며 나탈레가와 장관은 김 제1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덧붙임.

- **北, 日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10/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것을 "군국주의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통신은 '전범자들을 찬미하는 병든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8일 일본 국회의원 15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재침 준비를 다그치려는 군국주의적 망동으로 과거 일제의 범죄와 똑같이 엄중시해야 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몽골 대통령 내주 방북…김정은과 회담(10/22, 교도통신)**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다음 주에 북한을 공식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회담한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함.
  - 몽골 정부 관계자는 이 통신에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28일 예정된 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와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美 선교단, 내년 북한서 '통일축구대회' 추진(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한 국제선교단이 내년 북한에서 재미동포 축구단이 참가하는 '통일 축구대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미국 텍사스 주의 협동침례교단(CBF) 산하 국제선교단은 내년 6월께 미국 거주 한인 축구단이 방북해 강원도 원산시 축구단 또는 강원인민병원 축구단과 친선 통일 축구대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최고 수준 대북제재 유지"(10/23, 미국의소리(VO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3일 전함.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국가로 지정했다고 방송은 밝힘.

북한 주재 中대사, 세포등판 축산단지 건설현장 방문(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류훙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강원도 세포등판에 건설 중인 대규모 축산단지를 둘러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대사 등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세포등판 축산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으며 중국 외교관들에게 2017년까지 가축 수만 마리를 길러 매년 수천t의 육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국 관광업계, 겨울철 북한관광 준비 분주(10/23, 중국신문사)

– 북한이 올해부터 외국인에게 겨울철 관광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관광업계가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3일 전했음.

– 통신에 따르면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단둥의 중국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측과 겨울철 관광코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北, 페루 대사에 김학철 임명(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페루 주재 북한 대사에 김학철을 임명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학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지만, 군인 출신으로 추정되며 1968년 콩고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09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에 선출됨.

북한 역도 김은국,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10/24, 조선중앙방송)

– 북한 역도선수 김은국이 2013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4일 전함.

– 중앙방송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회에서 우리나라 김은국 선수가 남자역도 62kg급 끌어올리기(인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했다"고 밝힘.

- **美 구호단체, 北 홍수피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10/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 구호단체 '머시코'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 병원에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머시코는 지난여름 홍수 피해가 컸던 평안남북도 병원에 최근 항생제 280만정과 탈수증 치료제 90만 정을 지원했다고 RFA에 밝혔으며, 이 단체는 과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 없이 자체 모금으로 지원했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유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해야"(10/24,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제68회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에 신뢰 회복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유엔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관계에서 강권과 전횡이 판치고 인권보호 등의 구실 아래 내정간섭과 제도 전복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에 유엔이 악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유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밝힘.

- **北 올 1~9월 스위스 시계 수입량 작년보다 절반 감소(10/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올해 1~9월 스위스 시계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방송은 스위스 시계산업연합을 인용, 북한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기계식 손목시계 155개, 전자 손목시계 231개 등 모두 38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입한 양(754개)의 51.2%에 불과했다고 전함.

- **北, 러시아 연해주에 스포츠 교류 제안(10/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에 선수단 합동 훈련과 친선 시합 등 스포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이달 23일 연해주 정부 청사를 방문, 장 쿠즈네초프 문화·스포츠국 국장을 만나 상호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함.
  - 림 총영사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북한과 연해주가 레슬링, 배드민턴,

체조, 배구, 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합동 훈련과 친선 시합을 하자고 요청했으며 쿠즈네초프 국장은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함.

- **세계식량계획, 北 평성시에 영양과자 공장 문열어(10/25,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 새로운 영양과자 공장을 열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WFP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평성시에 매달 294t의 영양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새로 열었다고 밝혔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영양과자는 인근 12개 군의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23만 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임.

- **北 노동신문, 中 6·25참전일 맞아 "양국 친선" 강조(종합)(10/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63주년인 25일 특집기사를 통해 피로 맺은 양국의 '동지적' 친선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강조함.
  - 신문은 6면에 '전화의 불길 속에서 두터워진 동지적 우의와 친선'이라는 제목의 논설과 함께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용맹성과 희생정신을 찬양하고 양국 군인의 '우정'을 과시하는 기사 3개를 나란히 실었음.
  - 신문은 논설에서 "중국인민의 항미 원조는 숭고한 이념과 위업실현을 위한 혈전의 길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이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고한 불변의 유대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중국인민지원군에 경의를 표함.

- **北, 금융제재 비난…"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 입장"(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유지키로 한 것을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금융행동그룹' 총회에서 북한의 금융제도를 문제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 강력히 배격한다"고 밝힘.
  - 또한 북한에서 자금 세척이나 테러자금 지원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금융기구로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런 기구와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함.

- **올해 1~8월 북미교역 570만弗…작년비 반토막(10/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8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약 570만 달러(약 60억 원)로 집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양국 교역액 1천180만 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이며, 올해 1~8월 양국 교역액은 대부분 미국의 대북 수출액이었으며 미국의 수입액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北, 일본인 유족 성묘 방북 다시 허용(10/27, 미국의소리(VOA); NHK)**
– 북한 당국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사망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을 다시 허락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27일 전함.
– NHK 방송은 일본 도쿄에 사는 부부와 가고시마현의 한 남성 등 일본인 3명이 지난 24일 북한에 매장된 유가족의 성묘를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사 논평】日 방위상의 '北 미사일기지 타격 언급' 관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10.21,중통/군사대국화와 재침을 위함 음흉한 기도)
・美日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10.3, 도쿄)시 北 미사일기지 타격능력 검토 언급
– 【중통 논평(10.22)】日 국회의원 150여 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10.18)에 대해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를 다그치려는 군국주의 망동으로 과거 일제의 전범죄와 똑같이 엄중시해야 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10.22,중통/전범자들을 찬미하는 병든 일본)
・'美-日 안전보장협의위원회(10.3, 도쿄)' 합의를 거론하며 '일본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주장(10.22,중통·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10.2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10.16-18,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을 최고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은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시도, 자주권과 생존권 침해"라고 반발 비난 중통 기자 대답(10.25,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외부 핵위협 가중되는 한 핵 억제력 강화"(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3일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외부의 핵위협이 높아지면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동되는 것

은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반공화국 제재'뿐이라며 "외부의 핵위협이 가증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 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하 북한의 정책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북한의 '선핵포기'가 아니라며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해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함.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새 터널입구 2개 뚫어(종합)(10/24, 연합뉴스)**

- 북한이 향후 또 다른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두 개의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인용해 보도함.
-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및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갱도 입구와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고 설명함.

3. 대남동향

가. 정치 · 군사

○ **北 조평통, 최윤희 합참의장 비난…"도발시 불바다"(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최윤희 신임 합참의장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호전적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최 의장이 북한을 겨냥한 '선제타격'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호전적 망발과 군사적 대결 망동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공, 영해, 영토에 단 한 점의 도발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서울만이 아니라 온 남조선 땅이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한미 대북심리전 강화 계획' 비난…"중대한 도발"(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2일 한 · 미 군 당국이 내년 한미 연합군사연습부터 대북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파멸을 앞당길 새로운 심리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

서 "(한국 정부가) 심리모략전의 통합 · 정례화까지 공표한 것은 대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열한 심리모략 방식을 동족대결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광증"이라고 주장함.

○ **北,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또 비난…"반통일대결정책"(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본질에 있어 체제 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통일대결정책"이라고 24일 보도함.
- 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맞아 게재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이란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힘.

○ **北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폭거"(10/2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 보수패당의 강제해산 책동은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유례없는 파쇼적 폭거"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 "南은 '윤석열 쇼크'로 난리"(10/25, 조선신보)**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건이 조선신보의 '가십 기사 코너'에 25일 보도됨.
- 신문은 25일 '메아리'라는 코너에서 "남조선이 '윤석열 쇼크' 때문에 난리"라며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년 대선 당시 트위터글로 문재인 · 안철수 후보를 비난한 사실을 최근 밝혔다고 전함.

○ **'불법 입북' 6명 우리측에 송환…北, 유해 1구도 인도(종합2보)(10/25,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4시 50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 · 송모(27) · 윤모(67) · 이모(65) · 정모(43) · 황모(56)씨 등이며 북한은 이들 6명과 함께 유해 1구도 함께 우리측에 인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유해는 이날 송환된 이씨의 부인으로, 북측은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했다'고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힘.

○ **北 통신 "불법입국 南 국민 인도" 신속 보도(10/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6명이 판문점으로

돌아온 오후 5시 48분께 북한 적십자회는 "25일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고 밝힘.

- 통신은 해당 기관이 그동안 이들을 조사했다며 송환 배경에 대해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 北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발표…국정원 해체 주장(10/26, 노동신문)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26일 남한에서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유신독재' 체제가 부활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조국통일연구원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백서에서 "악의 무리들(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실현할 수 없다"며 "괴뢰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사민당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파쇼적 폭거"(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은 26일 남한 여권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의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용납 못할 파쇼적 폭거"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사민당은 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오늘의 남조선은 정치적 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된 정치 무풍지대, 파쇼의 난무장(亂舞場)"이라고 밝힘.
- 또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열한 정치모략'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대결분자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라고 말함.

○ 北, 박정희 34주기 맞아 "유신독재 부활" 비난(종합)(10/26, 노동신문)

- 북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인 26일 남한에 '유신독재' 체제가 부활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파멸을 예고해주는 유신독재 부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신의 후예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오늘 남조선에서는 정보원과 경찰, 군부 패거리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진보세력 탄압에 총발동되고 있다"고 전함.

○ 군·경, 표류하던 北어선 1척 송환…"귀순의사 없어"(종합)(10/27, 연합뉴스)

-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해군과 해경이 합동

으로 구조해 북한에 인계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우리 측이 국제상선공통망(선박 핫라인)으로 송환 의사를 통보한 지 14분 만에 신속하게 수락하겠다는 답신을 해왔음.
- 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어제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거진 앞바다로 예인했다"면서 "해군과 해경이 나서 기관을 수리하려 했으나 수리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 9시 48분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10.22)】 내년 韓美 연합군사훈련부터 '對北 심리전 연합훈련 강화'(국감자료) 관련 "비열한 심리모략 방식을 동족대결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광증"이며 "우리(北)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10.22,중통/파멸을 앞당길 새로운 심리모략소동)
  - 심리모략전의 통합, 정례화까지 공표한 것은 대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임.
  - 우리(北)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한 것과 같으며 조금만 움쩍해도 즉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8호(10.24)】 새누리당 및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 등 관련 '통합진보당 탄압책동은 진보세력의 근간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며 '우리(北)와 연계시켜 강제해산시키려는 것은 용납 못할 도발이며 도전'이라고 비난(10.24,중통·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 ISIS '북 원심분리기 핵심부품 생산설은 과장'〉(10/20, 미국의소리)**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8일 올리 아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일부 핵 전문가의 분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음.
- 이 보고서는 미국의 조슈아 폴락 과학응용국제협회 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능력을 갖췄고, 수출통제 · 제재 · 차단 등 현행 대북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작성됐음.
- 올브라이트소장과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오히려 대북 수출통제와 제재가 북한이 아직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첨단기술 제품과 물자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력으로 이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중-러 6자 회담 수석대표 한달만에 또 회동〉(10/2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6자 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달 19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한 것은 꺼져가는 6자회담의 불씨를 되살려 다시 한 번 북핵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국 당국은 지난달 18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국자들과 학자 등을 초청해 이례적으로 반관반민 형식의 '6자 회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회담 재개에 공을 들이고 있음.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새 터널입구 2개 뚫어"〉(10/24, 연합뉴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3일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과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갱도 입구와 이곳에서 파낸 흙더미가 관찰됐다"고 밝혔음.

- 38노스는 이는 향후 핵실험에 필요한 새 갱도를 뚫는 것일 수도 있고, 2009년 및 올해 초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갱도 내부의 통행과 통풍을 원활하게 하려 추가로 출입구를 건설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음.
- 이에 대해 우리 군 소식통은 24일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8노스 보도대로 새 갱도를 뚫은 것은 없다"고 전했으며, 정부 고위소식통도 "이전과 다른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음.

○ **〈中, 北 '안보 불안' 해소 필요성 강조〉(10/24,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반드시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외부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핵 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음.
- 대변인은 "중국은 계속해 반도 비핵화와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가 관련국의 공동 이익에 맞는다고 여긴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길"임을 강조했으며, 6자회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당사국들이 같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임.

나. 미 · 북 관계

○ **〈北 "외부 핵위협 가중되는 한 핵 억제력 강화"〉(10/24, 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외부의 핵위협이 높아지면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정책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북한의 '선핵포기'가 아니라며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해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음.
- 또한 최근 북한인 영변의 5MWe 원자로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은 저들 죄행을 가리고 긴장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에 대한 위반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음.

다. 중 · 북 관계

○ **〈北 노동신문, 中 6 · 25참전일 맞아 "양국 친선" 강조〉(10/25,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 · 25전쟁 참전 63주년인 25일 특집기사를 통해 피로 맺은 양국의 '동지적' 친선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음.

- 신문은 이날 6면에 논설과 함께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희생정신을 찬양하고, 양국군의 우정을 과시하는 기사 3개를 실었음.
-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중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국제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음.

라. 일 · 북 관계

○ **〈北, 日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10/22, 연합뉴스)**

-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범자들을 찬미하는 병든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8일 일본 국회의원 15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음.
- 통신은 이를 두고 "군국주의적 망동으로 과거 일제의 범죄와 똑같이 엄중시해야 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일제가 아시아에서 저지른 죄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일본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음.

○ **〈北, "내년도 일본인 성묘 방북 허용"〉(10/25, 교도통신)**

- 통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해 당시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족들의 성묘에 대해 일북 교류협회 간부는 내년에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음.
- 일본인 유족의 성묘는 지난해 8월 북한이 성묘를 허용한 이후 올해로 8번째이며, 해당 간부는 23일 성묘 차 평양을 방문한 유족들에게 이러한 수용 방침을 설명했음.
- 이번 방북에 나선 일본인들은 29일까지 북한에 체류할 예정이며, 함흥에 있는 일본인 유골 매장지 이외에도 금강산 등지를 방문할 예정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 · 미 관계

○ **〈일본 맹비난하는 한국, 호각 부는 미국〉(10/21, WSJ)**

-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외교관들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양측에 자극적인 언사를 자제하고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부상 등 공동이익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음.
-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대사와의대화' 행사에서 지난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한국이 "원시안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현재의 긴장상태가 한국 국내 정치와 한미동맹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지적했음.

-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별도의 문건에서 전직 고위급 외교관 에반스 리비어는 "두 우방국의 이런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한국, 차기 전투기 기종 F-35로 가닥"〉(10/24, Reuters)

- 23일(현지시간) 한국 공군의 F-X 기종 선정 경쟁에 정통한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35로 가닥을 잡고 이를 내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음.
- 익명의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매 대수도 밝히지 않았으나 이런 내용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음.
- F-35 사업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 역시 티타늄 등 자재를 미리 조달하기 위해 한국과 록히드사의 계약이 연중 체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전투기 공백'을 피하기 위해 보잉사의 F-15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음.

〈한미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합의 협력키로"〉(10/25, 연합뉴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1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상견례를 겸해 면담을 가지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으로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매끄럽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양측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김 실장과 라이스 보좌관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간 상시 소통·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음.

〈미 국무부 "한-미,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10/26, 미국의소리)

-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한국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양국 현안과 지역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했다고 밝혔음.
- 북핵 문제와 6자회담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케리 장관과 김 실장이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며 공이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는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음.
- 김 실장은 오후에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도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여전히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핵심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음.

○ **〈캠벨 "美, 이제 한일 관계개선 조치 나설 때"〉(10/26, 연합뉴스)**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한일 간 불화가 한미일 3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있는바 미국 정부가 갈등을 해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음.
- 캠벨 전 차관보는 특히 "양국이 서로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논의의 핵심 틀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우방과 주변국들도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어, 그는 한국이 대북외교에서 지배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인정돼야만하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어떤 종류의 합의라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한국도 과거 '하나의 중국(One China)'란 개념처럼 통일된 한반도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나의 한국(One Korea)'개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나. 한 · 중 관계

○ **〈中,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 수용할 수도"〉(10/24, 조선일보)**

- 청샤오허 런민대 교수는 24일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토론문에서 "중국은 평화, 신속, 자주, 충격 내재화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이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중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단, 청 교수는 한국에 의한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해 '한반도 안정'이란 전제를 달았으며, "만약 한국이 통일의 대가를 책임질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음.
- 청 교수는 런민대학 중국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이며, 중국의 유력 국제정치학자 중 한사람인바 그의 말이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 한 · 일 관계

○ **〈日,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인터넷 유포…정부, 항의〉(10/23, 교도통신)**

-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투브에 업로드했으며,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이를 링크한 것으로 파악됐음.

– 동영상에는 '17세기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확립, 이를 1905년 가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있으며,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도 들어있음.
– NHK는 일본 정부는 향후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이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 아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을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 홍보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일본, 독도방어훈련에 항의…주일공사 조치〉(10/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 군·경 합동으로 이날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 이날 김원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극도로 유감"이라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
– '독도의 날'인 이날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극우세력을 비롯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를 퇴치하기 위한 독도방어훈련이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해군과 해경 합동으로 진행됐음.
–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천200t급)과 호위함, 초계함 등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 경비함 1척 등이 참가했으며, 이례적으로 해군 특전대대(UDT)와 해경 특공대도 참여했음.

○ **〈정부 "왜 원치않는 사람을 야스쿠니에 합사하나"〉(10/24,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일본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음.
– 대변인은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킨 행위는 당사자 및 그 유족의 명예·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면서 "반인도적 몰역사적인 결정이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몰역사적인 인식은 일본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한일관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고위 지도자들이 진실에 눈을 뜨길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라. 미·중 관계

○ **〈美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진수…중국·북한 압박〉(10/22, 연합뉴스)**
–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날 중에 레

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호'(DDG-1000)를 진수하고, 이 구축함은 이르면 내년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함.

- 줌왈트호는 미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최대 규모로, 특히 사거리가 160km에 달하는 155mm급 함포장착, 헬리콥터와 무인기 이착륙 가능, 최첨단 레이더 장치 장착, 현 구축함 승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해 '항공모함 킬러'로도 불림.
-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해군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핵 ·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감시,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음.

○ **〈"중국軍, 미국 대상 '정치전쟁' 시동"〉(10/24, 연합뉴스)**

-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대외공작'이라는 작전명 아래 미국을 주 대상으로 정치 선전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함.
- 총정치부가 해외의 친 중국 단체나 언론 매체 등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정보원을 모집해 선전전 공세, 매체 보도 활동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우호 세력을 통해 미국의 정치전략이 중국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임.
-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전이 일당 독재의 '중국 모델'이 서방의 민주정치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등 세계의 보편가치와 국제규범 등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공공외교의 범주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음.

마. 미 · 일 관계

○ **〈美日濠, 日대지진 피해지서 내년 합동훈련〉(10/24,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 자위대와 미국 · 호주군은 내년 가을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하나인 미야기현에서 합동 재난구호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음.
- 세 나라가 일본에서 재해대응 훈련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며, 이 훈련에 미국 해병대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를, 호주군은 공군 수송기 C17을 각각 파견할 방침임.
- 신문은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세 나라의 합동훈련에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협력태세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음.

바. 중 · 일 관계

○ **〈"아베 '중국 무인기 영공 침범시 격추도 가능' 승인"〉(10/20, 연합뉴스)**

- 20일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 등

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인기 대처와 동일하게 격추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9일 중국 무인기의 센카쿠 부근 비행 사실을 파악한 뒤 재발시 대응방안을 검토했으며, 중국 무인기가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경고를 식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유인기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일반론으로서 무인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 유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위대법에 근거해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中 "日, 역사반성 없다면 이웃국가들과 미래없다"〉(10/21,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아베 총리가 제1차 집권기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이라고 말한 것 등에 대해 "일본이 역사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 영혼을 잡고 있는 다면 일본과 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떤 미래도 없다"고 말했음.
- 이어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인민들에게 대죄를 지은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임을 지적했음.
- 또한, '한국과 중국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는 내정간섭'이라는 일본 일각의 인식에 대해서도 "일본 지도자가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는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되면 이는 결코 일본의 내정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음.

〈日, 국가안보 위험 요인으로 중국 명기〉(10/22, 연합뉴스)

- 일본 매체들은 22일, 전날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의 개요를 정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정부가 국가안보 전략 개요에 '중국 위협'을 명기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자국의 무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를 공식화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아베 내각은 이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과 더불어 연내에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임.

〈中 "댜오위다오 수호 능력 있다"…연일 일본 압박〉(10/22,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중국의 무인기가 영공 침범시 격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가영토를 수호하겠다는 결심도 있고 능력도 있다"며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발적인 행동에 굳건하게 대응하겠

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또 "최근 들어 일본이 인위적으로 국가안전에 대한 긴장, 대립을 조성해 이를 구실로 군비 확충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 외교부의 이런 방응은 최근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재개된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中 군함 5척, 또 오키나와 인근 해역 항해〉(10/25, 연합뉴스)**

- 25일자 홍콩 명보는 지난 23일 중국 군함 5척이 최근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통과해 24일 오전 중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일본 당국이 항해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일본 방위성은 이번 해역을 통과한 군함 중 3척은 지난 7월 중국 군함들이 처음으로 일본열도를 일주했을 당시 항해에 참여했던 군함이며, 해당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인 만큼 중국 군함의 항해에 문제는 없지만 함대의 항해 목적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해군 함정들은 지난해부터 수시로 오키나와와 미야코 해협 공해를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항해하거나 센카쿠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음.

사. 미 · 러 관계

○ **〈푸틴-오바마 회동 올해 힘들 듯〉(10/22, 러시아의소리)**

-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이 올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밝혔음.
- 우샤코프 보좌관은 미러 정상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전화회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음.
- 한편, 이날 윌리엄 베른스 미 국무부 제 1차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우사코프 보좌관은 밝혔음.

아. 중 · 러 관계

○ **〈러-中 총리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10/23,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제18차 러중 총리 회담을 열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리 총리는 "메드베데프 총리의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메드베

데프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함.

- 양국 총리는 회담에 이어 에너지, 통신,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21개의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다고 함.

○ **〈러 "연말까지 중국과 가스공급 계약 체결 계획"〉(10/24,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24일 기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음.
- 가스프롬과 중국 국영기업 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던 지난 22일 회담을 갖고 몇 년을 끌어온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중국 공급을 위한 계약 연내 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회담 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중국이 제안한 싱가포르 석유 가격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합의 했으며 현재 기술적 조건에 대한 협의를 중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와 중국이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극동으로부터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려는 한러 간 협상에서 중국 측 판로를 확보한 러시아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자. 기 타

○ **〈중국, '항모킬러' 창젠 10호 미사일 발사장면 공개〉(10/21, 연합뉴스)**

- 신화망은 21일 중국 CCTV가 지난 19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창젠 10호가 차량에 실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음.
- 창젠 10호 미사일은 사정이 1천500㎞수준, 비행기에도 장착돼 발사할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나며, 1만t급 구축함을 한 방에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음.
- 중국 정부나 관변에서 창젠 10호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공개한 것은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일본 등 중국 견제에 나선 국가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실제 행사 위한 법률 필요"〉(10/2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음.

- 교도통신은 이러한 발언은 자위권 행사의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일본, 북한 빌미로 핵보유 추진 가능성"〉(10/23,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에 따르면 리처드 새뮤얼스 MIT 국제연구센터 소장 등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반핵 여론이 강하지만 최근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새뮤얼스 소장은 일본의 핵보유를 부추기는 외부 위협요인으로 북한과 중국을 꼽았으며, 최근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대해 자위대 증강 시도를 핵무기 보유 가능성과 연결하기도 했음.
- 더욱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도 이를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역내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밝혔음.

〈"일본판 NSC 사무국에 중국 · 북한 전담반 설치"〉(10/24,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가안보국에 총괄, 동맹 및 우방국, 중국 및 북한, 중동 등 그 외 지역, 전략, 정보 등 총 6개 반(班)을 설치할 예정임.
- 국가안보국에 중국과 북한을 함께 관장하는 별도의 반을 두는 데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이를 방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알제리 일본인 인질사건, 센카쿠에서 중국 해군이 자위대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비춘 사건에 대응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불충분했다며 미국의 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한 일본판 NSC의 연내 발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